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://www.emerics.org/	「이슈&트렌드」
	인도 케랄라 주,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발생 작성 EMERiCs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
2018. 08. 30. 인도·남아시아	

- ❖ 인도 남부 집중호우가 활궤고 간 자리에 3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, 전염병 창궐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음.
-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인도 남부의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케랄라(Kerala)주를 강타함.
 - 인도 국가재난관리청은 케랄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5월 29일에서 7월 19일까지는 130명, 이번 8월에는 169명이라고 밝힘.
 - 케랄라 주는 인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. 인도의 평균 인구밀도는 1km²당 382명이지만, 케랄라 주의 인구밀도는 1km²당 860명이나 됨.
 - 산촌(散村)이 많고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온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고립된 마을이 많아 구조작업이 어려운 상황임.
 - 인도 정부는 케랄라 주에서 농경지 32,000헥타르가 침수되고, 도로 10,000km가 파괴되고, 가옥 2만~5만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가 약 30억 달러(약 3조 3,300만 원)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
- 비축 식량이 충분해 식량난 우려는 없으나 전염병 창궐 우려와 뱀이 출몰하는 등 이재민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됨.
 - 케랄라 주정부 관계자는 힌두교 수확제인 오남(Onam) 축제를 앞두고 있어 상인들이 식량을 비축해둔 덕분에 식량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임.
 - 그러나 물이 빠지면서 집으로 돌아온 이재민들의 증언에 따르면, 화장실의 오물이 넘쳐 흐르고,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오물에 오염되는 등 수인성(水因性)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는 상황임. 전기 공급까지 끊어진 상태라 펌프를 이용해 고인 물을 빼내기도 어려운 상황임.
 - 게다가 침수된 가옥에서 맹독성 독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어, 뱀 물림에 의한 2차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
- ❖ 케랄라 주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, 인도 중앙정부는 외국 정부 지원에 대한 거부 방침 재확인함.

- 환경단체들은 평년보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케랄라 주정부가 늦장 대응하고, 개발에만 몰두해 발생한 인재(人災)라고 주장함.
- 남아시아 댐하천주민연구소(South Asia Network on Dams, River and People)는 인도수자원 위원회(CWC)가 국가 전역에 걸쳐 226개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 예보를 하였지만, 케랄라 주는 빠져있었다고 힐난함.
 - 그리고 몬순이 막 시작되었던 지난 5월 31일에 이дук키(Idukki) 댐의 저수량이 이미 25%에 달해 경고음이 울렸으나,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질타함.
 - 케랄라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한 27개소의 댐이 한꺼번에 수문을 열어 방대한 양의 물이 하류를 덮쳐 4일 만에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함.
 - 8월 9일에 아시아 최대의 댐인 이дук키(Idukki) 댐의 수위가 최대용적인 2403피트에 육박하는 2400피트에 달해 26년 만에 수문 5개를 모두 개방하고 초당 70만 리터의 물을 페리야르(Periyar) 강으로 방류함.
 - 웨스트가트지질연구소(WGEEP)는 2011년 해당 지역에 재난 급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, 케랄라 주정부에 채광(採鑛)·채석 및 벌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, 주정부가 이를 묵살함.

- 케랄라 주정부는 인도 중앙정부가 UAE가 제안한 1억 달러(약 1,110억 원) 규모의 긴급 현금 구호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분노를 드러냄.
- 토마스 이삭(Thomas Isaac) 케랄라주 재정부 장관은 “1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난민 캠프에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심술을 부리고 있다”며, “정부가 UAE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대신 직접 나서서 케랄라에 그만큼 보상해줘야 한다.”고 날선 반응을 보임.
 - 8월 22일 인도 외무부는 내부의 노력을 통해 구호·재건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종래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, 외국 정부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.
 - 또한, 외부 지원금은 인도 출신의 개인이나 재단을 통해서 기부되어야 한다고 덧붙임. 인도는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낸 2004년 쓰나미 피해를 입은 후에도 외국 정부의 지원을 거절한 전례가 있음.
 -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긴급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길 원한다고 분석함.

EMERiCs

참고자료

- South China Morning Post, 'Snake alert' issued in India's flood-hit Kerala, 2018. 08. 25.
- _____, Facing US\$3 billion in Kerala flood damage, India rejects UAE's US\$100 million offer, 2018. 08. 23.
- News18, Keralites return to hundreds of carcasses, flooded toilets as state shifts focus on epidemic control, 2018. 08. 23.
- Express, Kerala flood map: What caused the floods in southern India and when did they start?, 2018. 08. 20.
- The Tribune, Kerala floods an example of human disregard for nature and climate change, 2018. 08. 18.
- Le Monde, Dans le sud de l'Inde, des inondations record causent des centaines de morts, 2018. 08. 17.
- Mongabay-India, Kerala floods: The ghost of past environment policy returns, 2018. 08. 15.